2015년 8월 4주차

■ 연구원 소식

○ 2015년 회원의 날 실시

- 날짜 : 2015년 08월 22일(토) ~ 23일(일)
- 장소 : 행사(전주대학교 일원), 숙박(초남이 성지)
- 내용 : 올 해 회원의 날은 예상치 못한 남북 양국간 대치로 인해 참석을 약속하셨던 회원 가운데 상당수가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부산, 서울을 비롯하여 경향각지에서 참석한 회원 60여 분께서 회원의 날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향한 도약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회원의 날은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명록 작성과 이름표 배부를 통해 간단한 접수 절차를 밟은 뒤, 원장님 인사와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올해 연구원 부설 연구소가 된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약칭 GHS)의 홍웅호 선생(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고려인'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부산환경교육센터 정호선 사무국장께서 천연 모기 기피제 제작행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대 한지산업관 일대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이벤트로 OX퀴즈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일정이 마무리 된 이후, 약 20여분 정도 걸리는 초남이 성지로 이동하여 방배정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진행된 애장품 경매를 통해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중간 중간에 연구원에서 준비한 소소한 상품을 나눔으로 회원의 날의 의미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규 일정이 마무리 된 후, 회원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23일 일요일 1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회원의 날을 기대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과 아쉽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의 날의 열기를 힘으로, 올 해 남은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15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의 날
- 사람의 가치를 향한 동행을 꿈꾸라 -

Dickies

박해군
박태성
박미스더

이정욱

Dickies
THE ORIGINAL

209

251

205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업 - 전주 한일고등학교 강의**

- 시간 : 8월 19일(수) 14시 ~ 16시
- 장소 : 전주 한일고등학교
- 내용 :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원 독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독도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독도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임숙정 연구실장이 한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8월 24일(월) : 주간회의

○ 08월 27일(목) : 연구원 가을답사 기획회의

○ 08월 28일(금) : 완주지역자활센터 인문학강좌

■ 역사속의 오늘

○ 비대치(鼻大峙)의 미국인 - 1950. 8. 25

: 윌리엄 딘.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소장. 그는 제주 4·3 때 미 군정장관이었고 사태를 온건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했던 김익렬 연대장을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제주도민들을 다 죽여도 좋다." 며 강경책을 주장하던 박진경을 후임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또 친일파 처단에 관한 법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그가 남긴 말은 그 이후 벌어진 우리 역사의 역류를 반영하고 있다. "군정이 폐지된 후에 조선 사람 자신이 친일파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일 것이나, 그렇게 되면 서로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점령 당시에 진주 목적의 하나로서 일제잔재를 소탕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군국주의적인 일본식 제도를 민주주의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친일파 운운한 것은 아니다. (서중석,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2 남북협상, 한울 35쪽)

이래저래 우리 역사와 좋은 인연은 아니었던 그에게 충격적인 악연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맺어진다.

본격적으로 미군 사단 병력이 인민군을 상대한 것은 대전 방어전에서였다. 2차 대전의 승리에 들떠서였을까? 인민군을 얕잡아 봐서였을까? 미군은 대전 전투에서 궤멸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 아비규환의 와중에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위망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철수 부대와 함께 대전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후퇴 도중 부대와 떨어진 채 근 한 달 동안 그는 본진을 찾아 헤맸지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다.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도로 가야 했지만 엉뚱하게 전라북도 진안 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맘씨 좋은 한국인들 가족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인민군의 감시를 피했지만 그의 도피 생활은 엉뚱하게 끝난다. 전북 진안에 있는 비대치에서 1950년 8월 25일, 지역 주민의 신고로 인민군에 잡힌다.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1995년 세상을 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새전북신문> 2009년 10월 8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어찌되었든 그날은 딘 소장이 동아시아의 소국 코리아라는 나라와의 사이에서 쌓았던 악연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악연을 쌓은 날이었다.

1950년 오늘, 미군 24사단장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로가 됐다가 1953년 9월 4일에서야 첫 번째 미군 포로로 송환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가 승승장구하다 천수를 누렸다.

그가 잡혔던 비대치라는 고개는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코크니재라 불리고 있다.

○ 아침이슬의 등장 - 1992. 8. 31

: 대개의 노래는 지은이와 부른이의 노래로 기억된다.

하지만 이 노래는 지은이와 부른이의 기대와 달리 김민기와 양희은의 노래가 아닌 시대의 노래였다.

김민기가 세상에 내놓은 '아침이슬'은 양희은이 입힌 목소리로 1971년 음반이 되어 세상에 나온다. "한국 대중가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노래"란 평을 들으며 건전가요로 선정되기까지 했던 이 노래는 지은이와 부른이의 속내와 달리 대중들에게 수용된다. 노래가 서정으로 다가서기에 너무 어두운 시대였던 탓이다.

실제 이 노래를 지었던 김민기는 보안대에 끌려가 수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정교한 논리의 취조를 받는다.

"야 이 새끼야, 긴 밤 지새우고의 긴 밤은 유신 말하는 거지?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란 민족의 태양 김일성을 말하는 가고..."

하지만 충성스러운 수사관의 기대와 달리 이 노래는 1970년도에 만들어졌고 1971년에 음반으로 발매되었으며 유신은 1972년. 아 웃픈!!! 시대여...

1970년대부터 금지곡으로 가둬져 방송과 무대가 아닌 거리와 선술집에서 불려져야만 했던 노래.

1987년 4월 전두환의 호헌 조치에 대하여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터져 나왔던 고려대 행정학과 이문영 교수의 회고는 '아침이슬'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노래였는지를 새삼 알려준다.

"나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오. 하지만 시국선언 대자보를 붙이던 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자유가 곧 인간을 평온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지. 벽보가 붙던 날 모두 고대 본관 앞에 모여 '아침이슬'을 불렀던 감격이 생생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의 찬가이며 자유를 향한 행진곡이었으며, 그를 통해 수백만의 가슴에 평화를 가져왔던 노래. 그것이 '아침이슬'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야 '아침이슬'은 해금이 되어 온전히 우리 곁으로 왔다. 저항에서 서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아침이슬'은 서정인가 저항인가?